

I. 출제의도와 문제해설 (인문계)

1. 2013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와 기본 방향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인문계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모의 논술고사는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의 논술고사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이 시험의 개괄적 형식과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제 논술고사는 본 모의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제시문과 논제의 유형과 배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둔다.

2013년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제시된 본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시험의 평가요소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다양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여 서술하는 능력
- 2) 제시문에서 주제의 핵심을 적절히 추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논술 능력
- 3)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

나) 제시문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되, 논제는 고등학교 상위권 수준의 이해 능력, 분석 능력, 추리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한다.

다) 2013년도 인문계 논술고사의 시험시간이 100분으로 축소된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시간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제시한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의 공통 주제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이다. 제시문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글들이다.

(1)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김기봉 외),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랑케 & 카』 (조지향), 『The Idea of History: With Lectures 1926-1928』 (Robin

Collingwood)와 『*What Is History?*』 (Edward Hallet Carr)에서 채록하여 출제 의도에 맞추어 변형한 글이다. 우선 역사 서술에서 고문서 등 일차 사료의 엄정한 선정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재현하려 한 랑케의 시각과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의미화 된다는 콜링우드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과거 자체를 순수하게 복원한다는 입장과 현재적 해석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했던 카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한 글이다.

(2)는 문학이 사실을 처리하는 방식을 서술함으로써 사실에 관한 문학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학은 사실로부터 취한 소재를 상상력으로 가공한다. 따라서 문학은 단순한 사실 재현이 아니라 사실에서 비롯한 허구이다. 그런데 문학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그것을 더 생생하게 여기고 사실 이상의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2)에서는 그러한 사례로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한다. 문학이 허구임에도 독자에게 사실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진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이 전하는 진실은 사실 여부를 초월하는 본질적 가치라고 볼 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서 감동하는 것은 그 가치에 공감하는 것이다. 문학이 전하는 진실의 감동은 독서행위를 통해 공유되기 때문에 문학은 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로써 우리는 삶의 의미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만나게 된다.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가 현실적 효용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문제 출제를 위해 출제진이 직접 집필한 글이다.

(3)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김상호), 『대상화와 문제화』 (김수미)에서 인용하여 변형한 글이다. 여기에서는 언론의 사실 보도가 그 자체로 절대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언론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기사화하는 방식을 예로 든다. ‘사실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한 버거와 루크만의 시각에서 보면, 해석 공동체의 존재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사실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재의 재현 과정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며, 누구의 시선으로 사실을 바라보는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집단의 가치와 해석이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실을 발견해 어떻게 기사화하는가는 일종의 선택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나 직업적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성을 간과하며 결혼을 타산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보도 경향은 지나친 일반화와 과장 보도의 위험이 있다. 외부자에 대한 내부자의 불신과 경계, 낭만적 사랑과 순수한 결혼에 대한 이상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는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때의 의사결정문제에 대한 논리적 과정을 가상의 상황에서 다루고 있다. 참인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의사결정이 옳으면 손실이 0이고 틀리면 손실이 1인 손실구조를 <표 1>과 같이 단순화하였다. 나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문조사 정보의 불확실성은 <표 2>와 같은 확률(probability)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제시한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비교의 기준으로 기대손실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대손실은 발생 가능한 손실을 해당 확률로 곱한 것들의 합이며, 이는 '라'에 특정 경우를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유형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나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며,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논제 해설

가) [논제 I] 평가 요소

논제 1은 900자 내외로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논제 1]의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1)에 제시된 역사 연구의 3가지 관점과 (2)와 (3)에 제시된 사례의 내용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2)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에 비추어 (2) 문학과 상상력, (3) 언론과 객관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연관시켜 비교하고 있는가?
- 3) (1), (2),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며 이를 논리적으로 논술하고 있는가?
- 4) 900자 분량의 비교적 긴 글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나) [논제 I] 답안 작성 포인트

- 1)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의 강조점과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2) (2)에 제시된 ‘문학과 상상력’의 문제를 (1)에 제시된 관점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문학과 상상력의 문제는 랑케의 관점보다는 콜링우드 혹은 카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문학에서의 상상력의 문제가 콜링우드의 구성주의적 관점 혹은 과거를 순수하게 복원하는 입장과 현재적 해석으로 과거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선 카의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서술해야 한다.
- 3) (3)에 제시된 ‘언론과 객관성’의 문제는 (1)에 제시된 랑케, 콜링우드 혹은 카의 관점과 모두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랑케의 객관적 사료의 중요성과 연결하려면 객관 보도의 문제와 연관되어야 한다. 콜링우드의 구성주의 관점은 언론의 사실, 시평, 오피니언 등의 주장 및 논조의 문제와 연관된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주장한 카의 관점은 언론의 해석 공동체 문제와 관련해 설명될 수 있다. 어떤 비교를 선택하건 제시문에 등장한 ‘결혼이민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논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4)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과 (2)와 (3)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주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 혹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문의 사례를 포함한 충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5) 900자 분량의 상대적으로 긴 글이니만큼, 이해와 비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논술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답안지를 작성하기 전에 글의 전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 6) 전체 답안지의 길이(850자~950자)를 벗어난 경우, 단락 구성의 완성도 부족, 문장의 완성도 부족, 원고지 사용법 오류, 철자법 오류 등은 감점 요인이 된다.

다) [논제 II] 평가 요소

(4)는 가상의 상황에서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위 판단에 대한 논리적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문조사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제시한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기대손실을 구해야한다. 나아가, H가 참인지 K가 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최대기대손실’을 사

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지가 평가의 주된 요소이다.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형식을 통해 응시자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라) [논제 III] 답안 작성 포인트

- 1) 특정 경우 ‘라’를 예를 들어 제시한대로,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대손실은 발생 가능한 손실을 해당 확률로 곱한 것들의 합이다. 이에 따라, K가 참인 경우에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기대손실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해진다.

K가 참인 경우 각 의사결정 방법들의 기대손실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
기대손실	1	0	0.3	0.4

따라서, 기대손실의 크기에 따라 A2, A3, A4, A1의 순서로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 2) 1)번에서와 같이 K가 참이라면 A2가 가장 선호되는 의사결정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H가 참인지 K가 참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A3으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경우, K가 참이면 기대손실이 0.3으로 작은 편이지만 H가 참이면 기대손실이 0.6으로 커진다. 반면에 A4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H가 참이든 K가 참이든 0.4라는 기대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A3으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면 H가 참일 때 큰 기대손실을 볼 것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A4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면 적어도 큰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 A4를 선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A4의 ‘최대기대손실’은 0.4로, A3의 0.6보다 작다는 점에서 최대기대손실이 작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A4를 선택해야 한다.